

추위 녹인 조용한 응원전 속 3년 결실 위해 '차분한 수능'

엘리베이터 갇히고 수험장 착각하고... 지각생 수송 지원 총력 학부모들 인근 사찰서 기도... 두통 호소 안타까운 시험 포기도

지난해 '스쿨 미투'에 이어 올해엔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대혼란을 겪었던 광주지역 고교들은 예년과 달리 과도한 응원을 자제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수능을 격려했다.

특히 지난 7월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고교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집중 배치된 수험장은 이들을 격려하는 교사나 응원하는 후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차분한 수험장 분위기와는 달리 올 수능에서도 시험장을 착각해 다른 수험장으로 간 학생부터 건강 등을 이유로 중도에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 등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다.

수능일인 14일 오전 7시 30분께 찾은 광주시 북구 동신고등학교 정문 앞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 후배와 교사, 학부모 등 6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후배들은 '수능도 능수능란', '만점길만 걸자',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등 제지

있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른 아침부터 선배들을 응원했다.

다만 예년처럼 응원가 부르거나 응원구호 외치기 등 과도한 응원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정성현(금호고 1년)군은 "선배들이 이날 하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잘 알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격찬 응원전은 선배들의 컨디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격려성 문구가 담긴 피켓 흔들기 등 조용한 응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광주시 서구 광덕고 앞에서 만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문재운(23) 상병은 "말년 병장으로 수능에 도전한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휴가를 썼다"며 "네번째 수능을 치르는 친구가 이번에는 대박을 터트려 의대에 꼭 합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동안 학부모들은 인근 사찰 등을 찾아 자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는 수험생을 둔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수험표, 수능 기도 발원문, 자녀의 사진이 담긴 수첩을 앞에 두고 절을 하거나 기도문을 읽었다. 정미경(여·50·광주시 서구 지평동)씨는 "연차를 내고 아들을 수험장인 동성고에 데려다준 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왔다"며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지각하거나 수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송지원도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 수험생 14명의 수험장 입실을 지원했다. 광주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10분까지 수능 관련 총 13건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이중 지각 수험생 이송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험장 착오 수험생 이송 2건, 수험표 찾아주기 1건 등이다.

이날 남구 진월동 동성고로 가야 하는 한 진모(19)군은 북구 두암동 동신고로 잘못 입실해 마감 9분을 남겨 놓고 효덕 112 순찰차량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수험장을 착각해 여학생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는 남학생도 있었다. 광산구 장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덕고에서 응시해야 하는 한 수험생은 시험장을 착각해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갔고, 별실에서 2교시(수학)까지 치른 뒤 점심 시간 때 장터고로 되돌아갔다.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에선 이날 오전 7시20분께 엘리베이터에 수험생 김모(19)양이 갇혔다가 긴급 출동한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김양의 신고 15여 분만인 오전 7시 35분께 구조 후 구급차를 타고 인근 남구 방림동 설월여고에 무사히 입실했다.

서구 쌍촌동 상일여고에선 시험을 보던 한 수험생이 갑자기 쓰러져 보이지 않자며 두통 등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수험생은 병원에서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시

험을 포기했다. 광산구 보문고에선 시험을 보던 한 수험생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시험을 마무리 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검찰, '열출력 급증 사고' 한빛원전 직원 무더기 기소

한수원 포함 7명 불구속 기소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한빛 원전 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14일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로 (주)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전 발전소장 A(56)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도달했음에도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발전팀장 B(53)씨, 안전차장 C

(47)씨는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하고 12시간 뒤에야 정지시킨 혐의다.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원 D씨가 제어봉을 조작했고, 조종 담당자인 원자로 차장 E씨는 옆에서 이를 보고서도 방치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무자격자인 D씨의 제어봉 조작과 사고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원안위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가 있는 B씨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으로 제어봉 조작 시 반응도를 고려해 서서히 수행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D씨가 0~200 스텝(단계) 중 40여 스텝을 한 번에 올리고 최고 100 스텝까지 끌어올려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안위 조사에 강제력이 없고 업무가 고도로 폐쇄적인 점을 악용해 주요 사실을 모른다고 하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하고 일부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안위의 조사·감독을 회피하는 한편 수사까지 무력화하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재단 등 67개 사회단체 "홍콩 폭력 진압 중단하라"

"한국정부도 인권침해 입장 밝혀야"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과 중국정부에 대해 무차별 폭력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성명을 통해 "홍콩과 중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한

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홍콩 시민은 송환법 개정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해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4일 시위 도중 경찰이 손榴탄을 피하려다 주차장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과기대 학생 차우츝(周梓樂)은 어제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홍콩과 중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구의회 선거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군부독재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침묵하지 않고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 친구한테 욕을 해!"

야구방망이로 외제차 박살 광주서부경찰, 조폭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자신의 친구에게 욕설을 한 남성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순 조폭폭력배 A(21)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 10분께 B(29)씨의 BMW 승용차 운전석과 전면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행동대원인 A씨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B씨가 술자리에서 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나와 길가에 세워진 B씨 차량을 부렸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평소 야구동호회 활동에 사용하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DJ, 5·18 때 北특수군 파견 요청' 주장 탈북작가 재판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탈북작가로 알려진 이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에 펴낸 책 '보랏빛 호수'

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하고, 북한군이 15대 대선에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주장한 혐의다. 지난 6월 별세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는 지난 3월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동차타 설정하고 방심 운항하던 어선, 화물선과 "광"



○...고흥 해상에서 자동차 타 시스템으로 운항중이던 80t급 어선과 1500t급 화물선이 충돌해 한바탕 소동.

○...1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40분께 어선 S호(89t·승선원 13명) 선장 A(65)씨는 직접 조타 운항을 하지 않고 자동조타로 설정한 상태로 침실에 들어가 TV를 보던 중 광양항에서 출항해 당진항으로 운항 중이던 H호(1574t·승선원

10명)와 고흥군 도양읍 무학도 북쪽 약 1.1km 앞 바다에서 충돌했다는 것.

○...해경의 한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스스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자동조타 시스템을 사용할 때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선원이 조타실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침실에서 TV를 시청하다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